

전북-강원 자치도, 교육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협력 첫걸음 마련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유 등 양 기관 교육의 질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천선미)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

육원(원장 최승극)과 22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해 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

하는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상호협력 및 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차 운영 △우수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정보 제공 △양 기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 지속적 발굴추진을 목표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유하고, 기관별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을 소재로 상호 방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선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양 교육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강릉에서 체결해 대회를 더욱 빛냈으며 올림픽대회를 축하하고 관련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과 22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김재훈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설맞이 판매행사

도내 11개 직업재활시설 참여 45개 품목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22일 도청 1층에서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는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과 판매 확대를 위해서 마련했다.

설을 맞이해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진행 중인 판매행사는 도청을 비롯해 6개 시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다음 달 2일까지 판매행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분청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남원시 23일, 군산시 25일, 김제시 30일, 부안군 31일, 익산시 2월 1일, 정읍

시 2월 2일 순으로 진행된다. 판매 품목들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육포, 김 세트, 홍삼, 누룽지, 떡, 견과류, 강정, 꽃감, 건강차 세트, 황태 등 식료품과 주방세제 및 비누 세트, 물티슈와 같은 생활용품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들이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장애인들이 강한 자활 의지를 갖고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들이 판매되는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장애인들이 자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활시설 지원 확대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

전북자치도, 시·군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장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판매, 거래내역 미신고 등 거짓신고, 계란 난각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 위반사태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정책관은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모집

도, 공모참여 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공모 참여 적극 독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업단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지역 청년이 사업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단 선정 시 재

영인력의 70%이상을 청년(만 18~39세)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공모로 진행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2023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9개 사업단과 함께 2024년 18개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해 총 27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매월 사업단 수퍼바이저와 행정인력 인건비 및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번 복지부 공모에서 더 많은 관내 청년사업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신청에서부터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단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관은 31일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과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도는 접수받은 서류를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6일 보

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전북 청년들이 청년사업단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꿈을 키우고 사회 참여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체건강증진, 치유농업힐링프로그램 등 자체개발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전북 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사회서비스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농업 탄소중립 실천 직불금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

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알개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4,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3가지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정책관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치매어르신 요양시설 기능보강 추진

전북자치도, 20개 시설에 13억원 들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 치매노인의 전문적인 보호와 노후된 요양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요양시설 20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기로 22일 밝혔다.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5개 시군(전주, 익산, 진안, 부안, 고창)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법안시설에 치매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비 1억2,800만 원을 지원한다.

치매 전담형 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침실과 거실이 넓고 치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촘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지난해 잦은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 19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11억2,800만원을 지원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개선을 입소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